

Issue Comment

2025. 8. 7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020150

2Q25 Review: 업황 둔화흐름은 여전

이차전지/석유화학

Analyst 노우호

02. 6454-4867

wooho.rho@meritz.co.kr

2Q25 설비 평균 가동률 52%(+9%p QoQ)

동사는 전일 2Q25 매출액 2,049억원/영업적자 -311억원의 영업실적 발표함. 전분기까지의 극단적으로 악화된 업황 흐름 대비 다소 회복된 국면은 다소 긍정적으로 판단. 당분기 특이사항은 (1) 판매단가는 -5% 내외 하락, (2) 판매량 +30%QoQ 증가: 미국 고객사 내 경쟁사 대비 판매비중 증가, (3) 총 설비 평균 가동률은 전분기 대비 상승한 52%(국내 48%, 말레이 55%)

2025년 하반기 불확실성 여전

25.7월 이후 이차전지 섹터 주가는 신 성장동력(ESS)와 수급 유인 효과에 강세 전환. 올 상반기까지의 극단적 침체기 대비 최근의 투자심리 개선은 섹터 내 일부 기업들의 멀티플과 추정치 상향이 발생 중. 그럼에도 2025년 하반기 Cycle 반등 국면이라는 낙관적 업황 전개 가능성을 제시하기 어려움.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이 주력하던 미국 전기차 시장 수요 역성장 우려 현실화 시점 도래와 시장 컨센서스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판단. 동사 역시 하반기 예상 가동수준을 기존 80%에서 70%로 하향 조정. 미국 고객사들의 재고조정 영향 및 유럽 고객사항 저조한 출하 영향 때문

분위기 반전을 위한 모멘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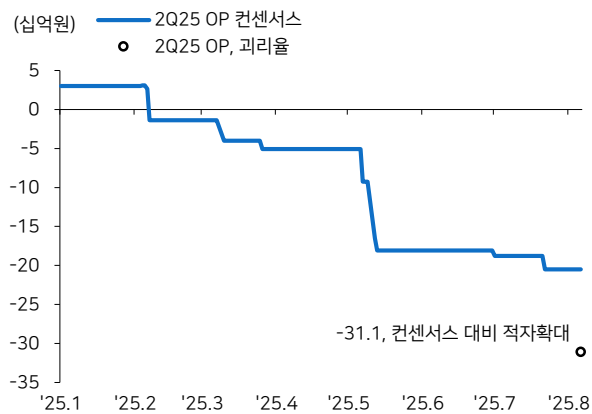
롯데에너지머티의 사업 모멘텀은 (1) 국내/외 고객사항 출하량 증가로 동박 1위 사업자 입지 강화, (2) AI가속기용 동박(HVLP4) 양산으로 영업실적 기여였음. 대외변수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EV 수요 전망치 하향, 고객사들의 저조한 출하량에 동사 역시 뚜렷한 가동률 반등 예상하기 어려움. 또한 신규 사업 AI가속기용 동박 납품일정 지연은 기존 가이드스 하향 변수 발생 등. 주가 낙폭에 따른 기존 Trading band 이탈은 분명했으나, 업황 및 사업 정상화 변수가 감지되지 않는다면 De-rating 지속 전망

표1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2Q25 Review

(십억원)	2Q25P	2Q24	(% YoY)	1Q25	(% QoQ)	컨센서스	(% diff.)
매출액	204.9	262.7	-22.0	158.00	29.7	212.0	-3.4
영업이익	-31.1	3.0	적자전환	-46.00	적자축소	-20.5	적자확대
세전이익	-64.6	13.2	적자전환	-64.90	적자축소	-21.6	적자확대
순이익(지배주주)	-48.2	5.4	적자전환	-46.70	적자확대	-14.9	적자확대
영업이익률(%)	-15.2	1.1		-29.1		-9.7	
세전이익률(%)	-31.5	5.0		-41.1		-10.2	
순이익률(%)	-23.5	2.1		-29.6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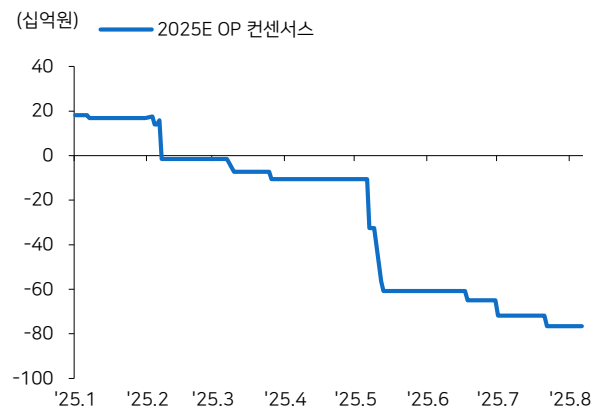
자료: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 2Q25P 영업이익, 컨센서스 대비 적자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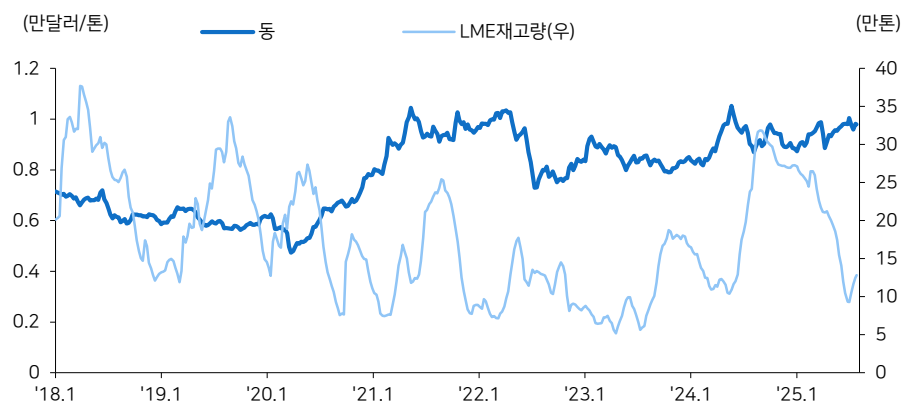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2025E 영업이익 컨센서스



자료: Quantwis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LME 구리 가격 추이



자료: KOMI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